동북아시아 다뉴세문경의 전개: 생성과 소멸*

허 준 양**

〈목 차〉

Ⅰ. 머리말
Ⅱ. 동북아시아 다뉴세문경의 전개
Ⅲ. 다뉴세문경 전개의 의미
Ⅳ. 사회·문화적 배경
Ⅴ. 맺음말: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다뉴세문경의 생성-발전-소멸 과정을 살펴보고, 그 전개의 의미와 배경을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물의 전환 또는 발전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현상, 즉 복합 요소의 결합과 그 변화상을 다뉴세문경에서 찾아내었다. 다뉴세문경의 생성은 다뉴조문경 기반하고, 유문청동기 뉴와 문양의 제작법을 채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동시에 다뉴세문경은 동경의 중심부에 문양을 삽입하고, 內·中·外區의 구획을 가능케 하여 '거울'이라는 상징성을 한층 구체화한 완성형의 제작을 의미한다. 다뉴세문경의 발전은 문양과 구획의 다양화, 사용(마모)의 구체화, 파경의 정형화 등으로 확인된다. 특히 완주 일대에 그 변화상이 집중되는

* 이 연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202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양상은 다뉴세문경의 제작지 또는 유통(분배) 중심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일본의 다뉴세문경 출현과 영남지역 유문동과의 제작(轉移)으로 확인되며, 이는 공인의 이주(物·人·技術), 그리고 제작법의 부재(문양 채택)에 따른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당시 사회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상의 다뉴세문경 전개는 한반도 내 新물질자료의 출토로 그 변화상이 파악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철기의 유입에 전환기적 모습이 그려진다. 물질자료는 그 문화의 전파로 이해되고, 그리고 집단 간 상호 관계에 따라 청동기의 변화가 성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다뉴세문경은 생성-발전-소멸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일련의 전개에는 한반도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살펴지는데,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연(燕) 등 역사적 사실과도 연계되는 모습이다. 다만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대입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주지된 바, 여기에서는 간략히 살펴보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였다. 다뉴세문경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 및 협업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다뉴세문경, 생성과 소멸, 일본 다뉴세문경, 유문동과, 중국 철기

Ⅰ. 머리말

다뉴경(多鈕鏡)은 조문경(粗文鏡)과 세문경(細文鏡)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중국 동북지역, 한국, 러시아에서, 후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출토되어 이들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물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다뉴조문경에서 다뉴세문경으로의 전환(轉換)은 한국에서 확인되고, 또한 표지적인 분포는 집단의 가치와 연결해서 해석되

기도 한다. 다만 기물의 분포 정황은 상호 간 교섭되는 관계 속에 살펴지고, 공통 제품의 출토는 당시 사회의 다채로운 변화상을 검토하는데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1]. 이 다뉴경은 기하학 문양의 거칠고, 세밀한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이 분류는 육안의 차이도 주요하지만 주형(鑄型) 제작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2], 그중 뉴를 만드는 심(芯)의 개수는 이들을 나누는데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다[3]. 즉 다뉴조문경은 1심 2뉴를, 다뉴세문경은 1심 1뉴를 제작하게 되는 것이다.

다뉴경의 연구는 문양, 형식분류, 편년, 제작과 신분 등으로 살펴졌으며[4], 이는 梅原末治, 金元龍, 宇野陵未, 全榮來, 岩永省三, 千葉基次, 李淸圭, 甲元眞之, 平吹豊, 李健茂, 李陽洙, 宮里 修, 趙鎭先 등에 의해 이뤄져 왔다[5]. 이중 全榮來의 외구(外區), 중구(中區), 내구(內區) 분류와 뉴의 구분은 현재 사용되는 문양 구획의 시초이며, 이후 岩永省三

1) 後藤 直, 〈日韓 청동기문화의 비교〉, ≪한일 농경·청동기문화의 비교 연구≫, 제8회 고고학 연구 공개강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2) 宇野陵未, 〈多鈕鏡の研究〉, ≪史林≫60-1, 史學研究會, 1977; 全榮來, 〈韓國靑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 ≪全北遺蹟調査報告≫7, 全州市立博物館·韓國文化財保護協會全北支部, 1977; 岩永省三, 〈多鈕細文鏡再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九州古文化研究會, 1983.

3) 李健茂, ≪韓國式銅劍文化의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4) 李健茂, 〈多鈕精文鏡에 대하여〉,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국보 제141호 '多鈕細文鏡'연구≫, 제5회 매산기념강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5) 梅原末治, 〈多鈕細文鏡の再考察〉,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文集≫, 大阪屋號書店, 1934; 金元龍, 〈韓國江原道襄陽郡出土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 ≪史林≫50-2, 史學研究會, 1967; 千葉基次, 〈多鈕鏡についての再檢討〉, ≪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甲元眞之,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論叢≫22, 九州古文化研究會, 1990; 平吹豊, 〈多鈕細文鏡の研究〉,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紀要≫15, 1999; 李淸圭, 〈東北亞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40, 1999; 李陽洙,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宮里 修, 〈多鈕細文鏡の型式分類と編年〉, ≪考古學雜誌≫92-1, 日本考古學會, 2008; 趙鎭先, 〈多鈕粗文鏡의 型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62, 2008.

은 이를 문양대-충전문 구획-충전문 완성으로 본 바 있다. 일련의 논의는 다뉴세문경의 형식분류와 문양에 집중된 모습인데, 이에 반해 李健茂는 한국의 이형청동기의 제작기술이 기존 청동기문화에 충격을 주어 동령과 다뉴정문경이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新문화의 형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이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된 바 있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다뉴세문경의 생성(生成: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발전(發展: 한 상태로부터 더 잘되고 좋아지는 상태로 옮아가는 과정)-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지거나 또는 자취도 남지 않도록 없애 버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뉴세문경은 다뉴조문경과의 선·후 관계에 대해 앞선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6], 한층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다뉴조문경에서 다뉴세문경으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이해하는 한국고고학의 현실인데, 이는 불완전한 연속성 등으로 제작집단을 달리하는 해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즉 양자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점을 주목하여 논지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뉴세문경의 생성은 다뉴경과 공반 출토되는 청동기를 살펴보고, 그 상사·상이성을 찾아 각각을 연계해 알아보겠다.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한국에서 급작스런 부재를 주목한다. 이는 제작집단의 이주, 또는 기술 전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소유 집단(또는 제작 공인)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을 토대로 다뉴세문경 전개의 의미를 변천하는 물질자료와 그 제작법을 통해 짚어 보고, 그리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출토되는 자료를 검토해 풀어내 보고자 한다.

---

6) 金元龍, 〈十二台營子의 靑銅短劍墓 -韓國靑銅器文化의 起源問題-〉, ≪歷史學報≫16, 1961; 金元龍, 〈韓國江原道襄陽郡出土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 ≪史林≫50-2, 史學硏究會, 1967.

Ⅱ. 동북아시아 다뉴세문경의 전개

1. 생성(生成)[7]

다뉴세문경의 생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시기의 병행 제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이들 간의 특징적인 모습이 연결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관찰되는 문양(文樣)과 뉴(鈕)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다뉴경의 문양을 살펴볼 것인데, 다뉴조문경과 다뉴세문경의 단사선문, 집선문 등은 상사성이 관찰된다. 하지만 전자의 뇌문, 성문 등, 후자의 돌점선문(점열문), 원권문 등은 상호 간의 상이성이 확인되어 연속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이성은 문양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제작법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어 이들의 계승 관계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이점을 이해하고, 또한 풀어나가기 위해 다뉴조문경에서 상이성이 확인되는 문양 외에 다뉴세문경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되는 문양을 유문청동기(有文靑銅器 또는 異形靑銅器, 劍把形·防牌形·肩甲形銅器 등을 통칭함)에서 그 상사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양자의 상사성이 관찰되는 문양은 Z형문, 돌점선문(점열문) 등이다. Z형문은 유문청동기에서 다뉴세문경으로 그 변천이 이어지고, 돌점선문은 유문청동기의 복합문에서, 다뉴세문경의 중구 문양대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다(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완주 신풍 外). 또한 뉴 측면에 시문된 종선문은 유문청동기와 다뉴세문경에서만 관찰되는데(다뉴조문경에는 확인되지 않음), 동일한 위치에 공통된 문양은 그 제작과 의도를 살펴

7) 다뉴세문경의 생성(출현)과 발전에 대해서는 졸고를 발표한 바 있어 여기에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허준양, 〈다뉴세문경의 모티프와 사용〉, ≪청주 오송 출토 다뉴세문경 조사 연구 한반도의 청동기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古鏡Ⅱ≫,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나라현립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2022.

볼 수 있게 한다(예산 동서리-완주 갈동). 이러한 공통된 양상은 기왕의 다뉴조문경에서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유문청동기와 다뉴세문경 상호 간의 공유, 또는 전승된 문양과 계승된 그 제작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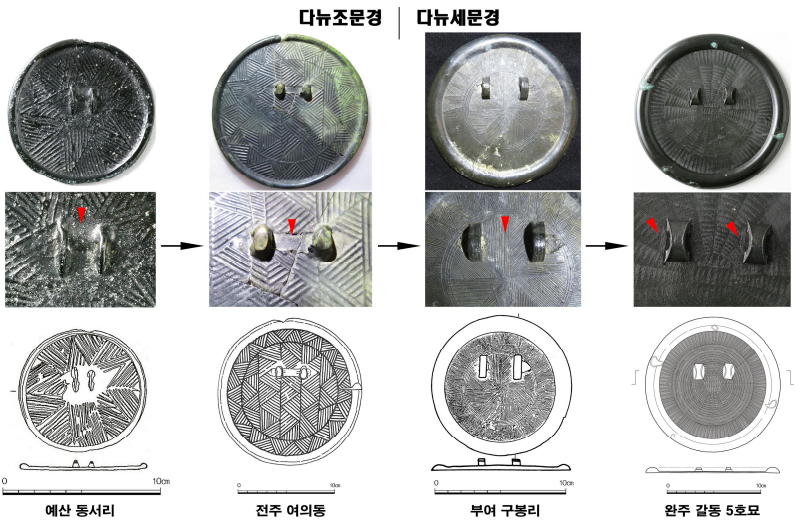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뉴경의 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는 고리(環) 등을 걸기 위한 공간(장치)을 말하며, 주형 성형에 토제 막대(芯)를 삽입하여 그 양쪽을 통과시켜 만든 것이다. 이때 다뉴조문경은 2개의 뉴를 1개의 심으로 연결하고, 다뉴세문경은 2개의 뉴를 2개의 심으로 각각을 분리해 제작하게 된다[8]. 따라서 심은 1개에서 2개로 그 변천이 확인되며, 이 변화는 뉴를 이격해 동경 사용의 원활함을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사이 공간에 문양을 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뉴의 분리 제작은 다뉴세문경의 전면(중심부)에 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것으로, 동경이 가지는 기능적인 면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뉴세문경의 뉴는 한국의 청동기 중 유문청동기에서 그 상사성이 관찰된다. 이를 분류하면 평면 형태에 따라 A식(직선형)과 B식(나팔형)으로 구분되고, 다뉴세문경은 A식 뉴의 기술적 연동성이 앞선 유문청동기에서 계승된 제작법의 채용으로 이해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뉴세문경의 뉴와 문양은 유문청동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다뉴세문경은 심의 분리 제작으로 그 중심부에 문양을 원활하게 넣어 內·中·外區의 구획을 가능케 한 완성형의 제품을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다뉴세문경은 다뉴조문경의 원형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유문청동기의 문양과 뉴 제작법을 채용하여 新제품을 생성시킨 것으로 파악되는 바이다[9].

---

8) 李健茂, ≪韓國式銅劍文化의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9)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예산-부여 일대는 다뉴세문경 생성의 중심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다뉴경의 뉴(심) 제작과 문양 시문의 변천

다뉴조문경의 원형 + 유문청동기의 뉴와 문양 채용
→ 다뉴세문경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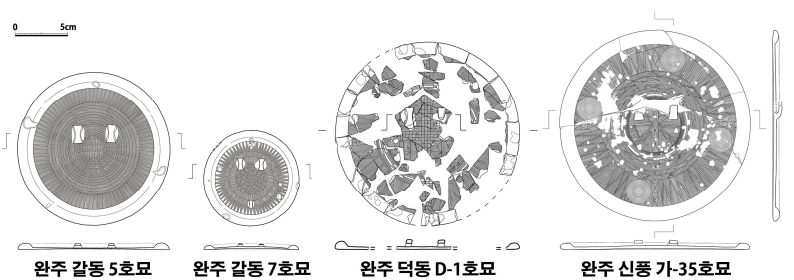
2. 발전(發展)

다뉴세문경이 생성된 후 다양한 양상의 발전된 모습이 지역 내 자료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 발전된 양상의 중심지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 중 완주 일대이며, 갈동·덕동·신풍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정 권역 내 상당수의 다뉴세문경을 보유한 점이 특징적인데, 그중 개별 목관묘에서 대체로 1점씩 부장된 점이 주요하다[10]. 더군다나 각각의 다뉴세문경은 다채로운 문양과 사용(마모) 및 파경 등으로 관찰

10) 韓修英,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硏究≫,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주목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다뉴세문경의 문양은 다뉴조문경의 단독 또는 복수에서 다양·복잡한 조합과 新문양으로 그 발전적인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다뉴세문경의 문양 구획은 2구에서 3구로 늘어나는데, 문양의 세밀화, 집중화와도 관련된다. 이에 대해 다뉴세문경의 2·3구 구획은 당시 지배자의 제정일치와 분리로 해석되기도 하였다[11]. 또한 다뉴세문경에는 원권문(圓圈文)이 들어서는데, 문양 변천의 정점을 이룬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단사선문+집선문+원권문(4구, 8구)의 구성과 조합은 그 숫자와 상징성이 더해졌을 것이다. 일련의 양상에 대해 李健茂는 토테미즘 신앙, 태양신 숭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고고자료를 살펴본 바 있는데[12], 당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완주 일대 출토 다뉴세문경

다음으로 다뉴세문경의 마모(磨耗)를 알아보면, 마모는 마연과 함께 소유자의 직접적인, 또는 실제적인 사용으로 이해된다. 그 흔적은 경면(거울면)과 배면(문양면)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공통된 사용의 모습은 동일한 행위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주 오송 1호묘[13], 완주 신풍 가-35호묘[14] 출토의 다뉴세문경을 들 수

11) 李陽洙, 〈多鈕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 ≪嶺南考古學≫35, 2004.
12) 李健茂, 〈韓國 靑銅儀器의 硏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28, 1992.

있으며, 왼쪽 뉴 왼편에 2.5×4.8cm 정도의 흔적이 사선 방향의 C자형으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 마모는 다뉴세문경의 근원적인 사용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李陽洙는 동경의 문지르는 의례 행위를 고조선이라는 민족의 동일성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15]. 이는 당시 수장의 권위와 정치적 모습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뉴세문경의 파경(破鏡)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 완주 덕동 D-1호묘 출토품이 주목된다[16]. 이 다뉴세문경은 목관묘 내 흩어 뿌린 정황으로 파악되는데, 즉 파경된 동경을 관내의 여러 곳에 하나씩 넣고, 흙을 덮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한 것이다. 기왕의 다뉴경은 단독 또는 복수로 부장하거나, 또는 깨어진 일부만 넣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어서, 의례의 정형화된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다뉴세문경은 매장의 장송 의례에 구체적인 양상이 그려진다. 이 과정은 마모→파쇄→산포로, 그 행위는 제도적인 습속(習俗)이 반영된 당시 의례의 반복적인 표출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17]. 다만 개별 자료에 표현된 흔적과 그 행위, 또는 목적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점은 일본의 다뉴세문경과 함께 한·일 고고학 연구의 병행 검토가 요구된다[18].

이상을 종합하면, 다뉴세문경이 생성된 후 발전된 양상은 소유자의

---

13) 중앙문화재연구원, ≪청주 오송유적≫, 2018.

14) 湖南文化財硏究院, ≪完州 新豊遺蹟Ⅰ -가지구-≫, 2014.

15) 李陽洙, 〈다뉴뇌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고려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35, 2010.

16) 전라문화유산연구원, ≪完州德洞遺蹟≫, 2012.

17) 大林太良, ≪葬制の起源≫, 角川書店, 1977.

18) 한경·방제경의 파경 및 천공에 대한 연구도 다뉴세문경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藤丸詔八郎, 〈破鏡の出現に關する一考察〉, ≪古文化論叢≫30(上), 九州古文化硏究會, 1993; 辻田淳一郎, 〈破鏡の傳世と副葬-穿孔事例の觀察から-〉, ≪史淵≫142,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硏究院, 2005; 李陽洙, 〈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 -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57, 2011; 高橋敏, 〈破鏡と四方転びの箱〉, ≪硏究紀要≫7, 公益財團法人山形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5.

기물에 대한 인식과 사용 등이 한층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련의 변화는 다뉴세문경에 집약된 기능으로 파악되어 그 상징성과 매장의례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된다[19].

다뉴세문경의 발전 =
문양과 구획의 다양화, 사용(마모)의 구체화, 파경의 정형화

3. 소멸(消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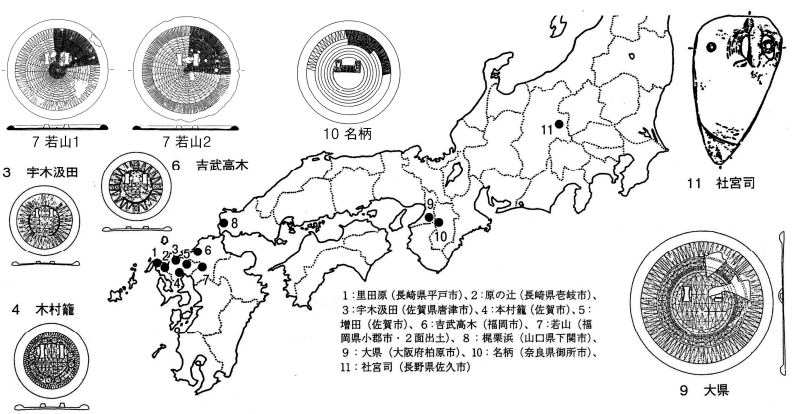
다뉴세문경의 다채로운 발전이 이뤄진 후 급작스런 소멸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다뉴세문경은 대체로 한반도 서남부지역에 분포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 자료가 출토되지 않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하나는 일본에 다뉴세문경이 출현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영남지역(동남부지역)에 유문동과(有文銅戈)가 제작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이상을 주안점에 두고, 각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다뉴세문경의 출현을 알아보겠다. 일본 야요이시대에는 한국의 청동기가 전파(전래)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왕묘로 언급되는 吉武高木 3호묘를 들 수 있다[20]. 여기에는 검·경·옥 등 다량의 청동기가 목관묘에 공반되어 한국의 자료로 설명한다. 특히 이 다뉴세문경은 일본 야요이시대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연동되는 모습이고, 또한 吉武유적 인근에는 대단위의 군집(高木, 大石)을 이뤄 권역 내 청동기뿐만 아니라 토기, 철기 등 다양한 고고자료가 출토되고 있어 한국 집단과의 상관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물질

19)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완주 일대는 다뉴세문경의 제작지(생산), 또는 유통(분배) 중심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0) 常松幹雄, ≪最古の王墓 吉武高木遺蹟≫, 2006.

자료만이 아닌 집단의 이주, 중심지 간 이동 등에 따라 권역 내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1]. 현재 일본에는 10여점의 다뉴세문경이 출토되고, 또한 북부규슈지역부터 지역적 전개가 확인되고 있어 정주와 전파를 주요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출토의 청동기는 한국 다뉴세문경의 소멸 과정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어 당시 병행되는 양상으로 해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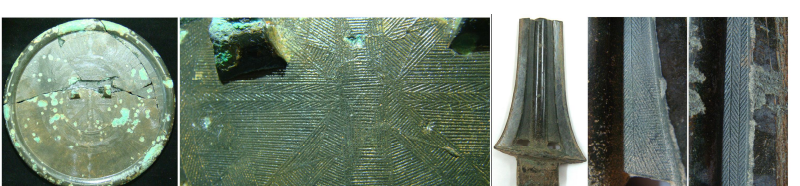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다뉴세문경과 그 출토지(佐久考古學會 2011 재편집)

다음으로 영남지역의 유문동과(有文銅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동과 중 혈구에 문양이 있는 것을 유문동과로 명명하고, 여기에 시문된 다뉴세문경의 문양을 초기의 것으로 설정해 영남지역 출토품과의 상관성을 짚은 연구가 있다[22]. 즉 傳논산 출토 유문동과에는 다뉴세문경의 사격자문, 집선문 등이 혈구(血溝)에 시문되어 동일한 제작법과 도구 등으로 연계된 제작과 기능(채용)으로 파악된다. 傳논산 유문동과의 대표적인 문양은 완주 신풍 가-35호묘 출토 다뉴

21) 佐久考古學會, 〈特集 社宮司·多鈕鏡の再檢討〉, ≪佐久考古通信≫108, 2011.
22) 李健茂, 〈有文銅戈考〉, ≪震檀學報≫71·72, 1991.

세문경의 문양을 들 수 있다[23].

이와 더불어 傳논산 출토품을 모방한 방제품(倣製品)이 영남지역에서 확인된다. 대구 신천동의 유문동과를 표지로 하여 경주 입실리·죽동리, 울산 교동리 1호묘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 유문동과는 영남지역의 독자적인 제작으로 파악되고, 선행 제품의 동일 기능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은 복합거치문과 우상문으로 그 구성이 나눠지는데, 이중 후자를 중심으로 변천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점은 문양이 가지는 상징성과 함께 집단의 내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한편 다뉴세문경의 소멸과 중국 전한경(前漢鏡)의 출현을 연속적인 양상으로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24], 양자 사이에는 공백(空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25]. 다시 말해 한국에 다뉴세문경이 소멸하고, 또한 전한경이 출토되기 이전까지 동경의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양자 사이에는 다뉴세문경의 문양을 이입한 유문동과가 그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 전환되는 기물의 특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다뉴세문경→유문동과(청동경 단절)→전한경의 전개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림 4〉 다뉴세문경과 유문동과의 동일 문양(필자 촬영)

23) 湖南文化財硏究院, ≪完州 新豊遺蹟Ⅰ -가지구-≫, 2014.

24) 안경숙, ≪多鈕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5) 허준양, 〈嶺南地域 靑銅武器의 祭器化에 대하여〉, ≪영남지역 무기와 무구≫, 제1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010.

결국,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소유자(공인)의 이주와 제작기술의 부재에 따른 양분된 양상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일본에 다뉴세문경이 출토되고, 또한 영남지역에 모방 제작된 유문동과가 출현한 것이다. 특히 유문동과는 기물의 형태를 달리하지만 다뉴세문경의 기능이 삽입된 것으로, 집단의 강한 독자성을 부여하고, 개별 문양은 상징적인 표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26]. 이후 한국의 유문동과는 일본에 전파되며, 이중 복합거치문은 오사카만형동과(大阪灣型銅戈)로, 우상문은 규슈형동과(九州型銅戈)로 차별적 분포가 진행된다[27]. 이점은 집단 간 배타적인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일본 내 구축된 사회상을 반영한 정황으로 파악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집단의 이주(일본 다뉴세문경)와 기술의 전파(영남지역 유문동과)로 그 전환점을 나타난다. 그 전환에는 다뉴세문경을 소유한 집단에 급변하는 당시 사회상이 고려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편 다뉴세문경이 소멸된 한반도 서남부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고고자료가 미미한데, 그 공간(지역)과 공백에 대한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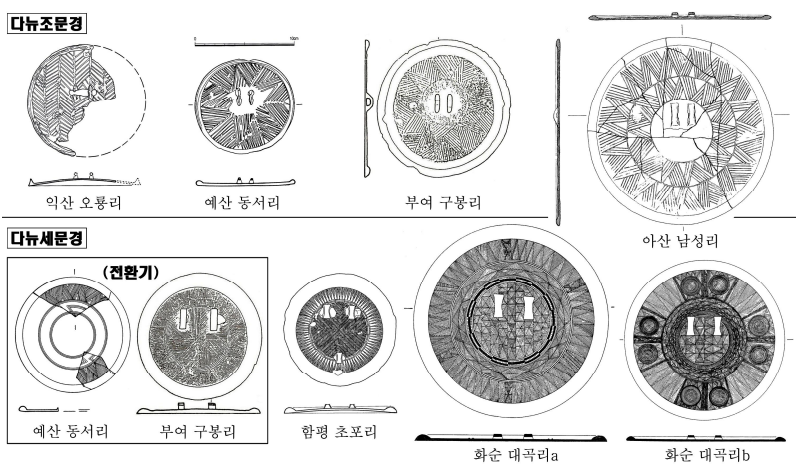
다뉴세문경의 소멸 → 일본 다뉴세문경의 전파(집단 이주)
↘ 영남지역 유문동과의 출현(轉移)

Ⅲ. 다뉴세문경 전개의 의미

다뉴세문경의 전개 과정에는 다양한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다뉴세

26) 李在賢,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016.
27) 近藤喬一, 〈武器から祭器へ〉, ≪古代史發掘≫5, 1974.

문경의 생성은 조문경-세문경의 전환을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검토한 뉴와 문양에 그 차별성이 인정되고, 또한 선행하는 유문청동기(검파형동기 外)에서 그 상사성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제품의 교체가 아닌 구체적인 고고자료에서 차이가 분별되는 점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新기술이 이입되어 다뉴세문경이 제작된 모습은 다채로운 양상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산 동서리, 부여 구봉리 유적에서 전환기의 다뉴세문경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다뉴조문경보다 문양이 세밀하나, 전형적인 다뉴세문경보다 거칠고, 또한 구획과 뉴 제작은 후행하는 자료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 그 변화상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림 5〉 전환기의 다뉴세문경

다뉴세문경의 발전은 주형(鑄型, 鎔范, 거푸집) 제작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6건 7면의 다뉴경 주형이 확인되는데, 다뉴조문경은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 북부지역, 다뉴세문경은 한국 남부지역, 그리고 일본에서 다뉴경의 주형이 출토하고 있다.

전자는 通化 小都嶺, 東豊 大架山[28], 東遼 南山崗, 傳맹산에서[29], 중자는 傳영암에서[30], 후자는 일본 須玖タカウタ 유적에서[31] 그 사례가 확인된다. 이들 주형은 앞서 언급한 뉴 제작법이 주목되며, 다뉴조문경은 1심 2뉴의 제작법이, 다뉴세문경은 2심 2뉴의 제작법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다뉴경은 석범과 토범의 제작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자료로 볼 때 다뉴경은 석범 제작의 사례가 다수이나 문양이 세밀한 다뉴세문경은 토범[32]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토범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주로 출토될 것으로 생각되나 주형의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이 제작과 그리고 폐기의 가능성을 높혀 준다. 최근 일본 須玖タカウタ 유적에서 확인된 동검·모·과, 검파두식 등의 자료를 볼 때, 토범의 출토 사례는 충분해 보인다. 다만 이상의 검토는 한정적으로 확인된 다뉴경의 주형에 따른 것이므로, 명확히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다뉴세문경의 발전은 일련의 과정 속에 이뤄진 것으로 이해되고, 추후에 이들 자료의 출토

---

28) 보고문에는 通化 小都嶺의 다뉴조문경을 9.2cm로, 東豊 大架山의 다뉴조문경을 10.3cm로 그 '직경'을 기술하고 있다. 이 직경은 동경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형의 크기를 뜻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이외의 자료는 모두 동경임). 또한 도면에는 스케일도 없어서 연구자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경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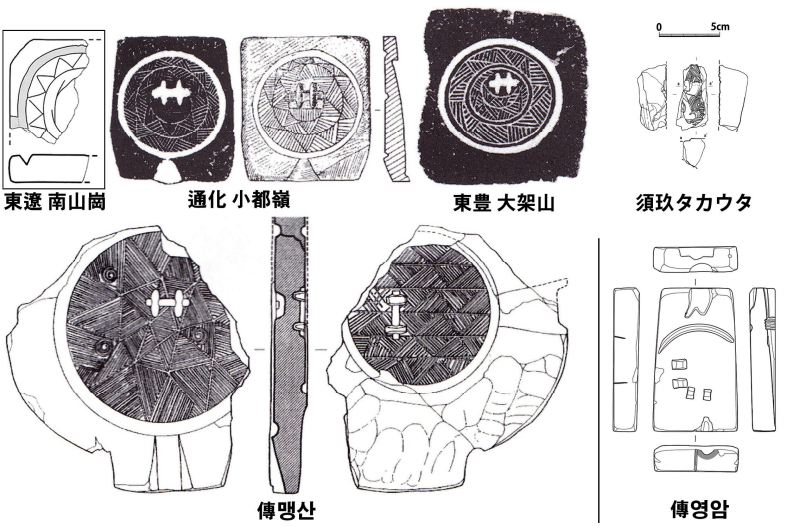
29) 滿承志,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3, 吉林博物館學會, 1987; 張英, ≪吉林出土銅鏡≫, 文物出版社, 1990; 唐洪源, 〈吉林東遼公路沿線文物調査簡報〉, ≪博物館研究≫1, 吉林省博物館, 1992; 梅原末治·藤田亮第, ≪朝鮮古文化鏡鑑(第一卷)≫, 養德社, 1947.

30) 林炳泰, 〈靈岩出土 靑銅器鎔范에 대하여〉,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Ⅰ -考古學篇-≫, 一志社, 1987;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거푸집鎔范과 청동기靑銅器≫, 2011.

31) 春日市教育委員會, ≪須玖タカウタ遺蹟3 -5次調査-≫, 2017.

32) 傳영암 출토 다뉴경의 주형은 2심 2뉴로 제작되어 다뉴세문경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배면에는 문양이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미완성 또는 다른 제작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후자를 고려한다면, 배면에 진토(眞土)를 발라 세밀한 문양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문청동기(검파형동기 外)의 제작법과 연계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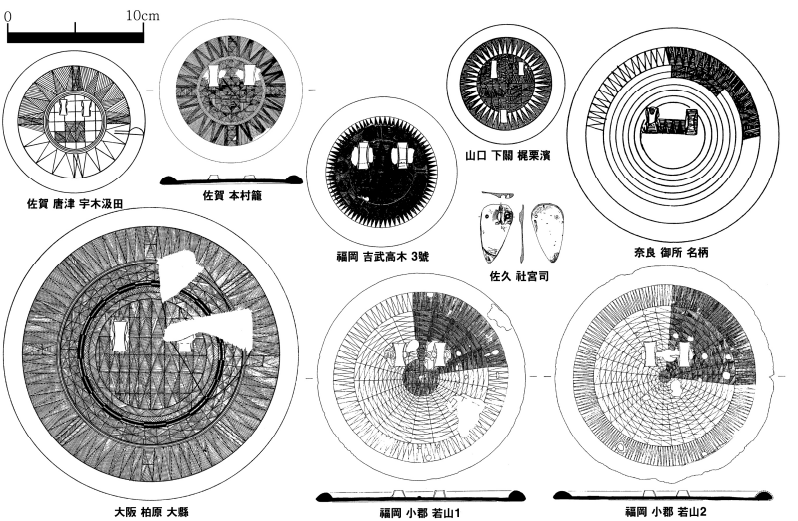


〈그림 6〉 동북아시아 출토 다뉴조문경과 다뉴세문경의 주형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한·일의 사례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다뉴세문경은 집단의 이주로 그 양상이 파악된다. 집단의 이주는 다뉴세문경이 한국에서의 소멸과 일본에서의 출현이 일정기간 병행되어 확인되는 점이 주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다뉴세문경만 출토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동기, 토기 외에도 목관묘, 옹관묘 등 다양하게 확인되어 이를 '物·人·技術'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33], 이 과정에 출토된 한국의 제품은 일본으로 이주한 그 집단의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34]. 대표적으로 吉武(高木, 大石)지역에 출토되는 다종·다양한 청동기는 그 집단에 구축된 정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재지집단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

33) 田中稿二, 〈多紐細文鏡と渡來集團〉, ≪季刊考古學≫43, 1993.
34) 片岡宏二,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 1999.

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지석묘, 송국리형 주거지와 토기 등이 일본에 출토되어 한·일의 상호 관계는 이미 선행 단계에 형성된 것이 파악된 바 있어[35] 그 교통로와 전개 양상은 양자의 시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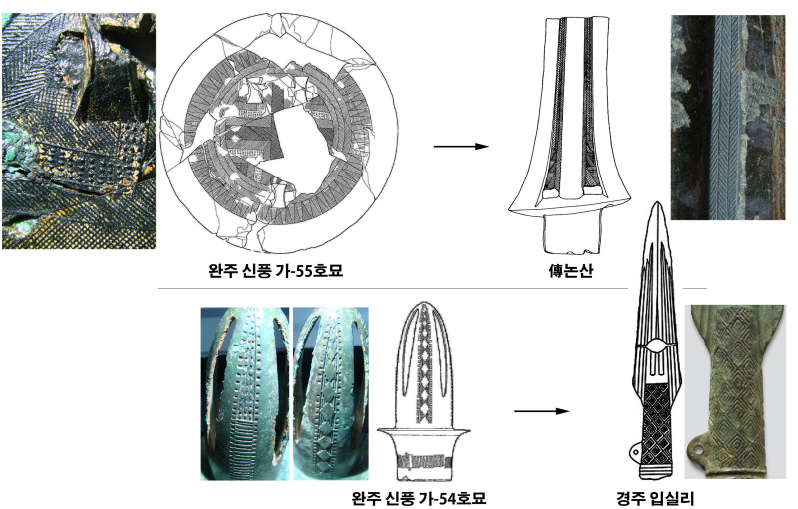
〈그림 7〉 일본 출토 다뉴세문경

반면 한국의 경우, 영남지역에 다뉴세문경의 부재는 한정적인 제작법의 채용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양을 채택한 유문동과의 존재가 주요한데, 이점은 다뉴세문경의 점진적인 소멸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고, 그 상징성이 이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다뉴세문경의 다양한 문양을 채용·모방하여 유문동과가 출현한 것이다[36]. 이로 인해

35) 石神 恰, 〈弥生ことはじめ事情〉, ≪弥生創世記≫,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2003.

36) 개별 문양의 의미는 당시 청동기 의례의 상징적 표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징은 유문동과의 복합거치문과 우상문일 것인데 양자는 그 소유 및 지역권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영남지역의 성행, 또는 보급(유통)된 유문동과가 각지에서 확인되고, 더불어 유문동모(有文銅矛)도 병행되어 출토한다. 특징적으로 이들 청동무기는 시문된 문양의 요철면(凹凸面)에 따라 제작법이 나눠지는데, 유문동과는 양각, 유문동모는 양각+음각의 조합이 그것이다. 때문에 전자는 다뉴세문경, 후자는 간두령의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흡사한 형태와 문양의 삽입은 동일한 기능의 사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문동과와 유문동모는 유문청동무기(有文靑銅武器)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점은 앞선 유문청동기(有文靑銅儀器)의 연속된 기능으로 이어지고, 또한 계승된 양상이 영남지역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37]. 즉 다뉴세문경의 부재에 따른 기술의 전파는 기물의 전환과 기능의 이입으로 그 변화상이 그려지는 것이다. 결국 문양의 채택과 新제작법의 출현으로 영남지역 내 집단은 이 유문청동무기를 제작하고, 또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다.



〈그림 8〉 유문청동무기(유문동과, 유문동모)의 출현 (허준양 2021)

37) 허준양, ≪한국식 청동무기의 동북아지역 전개≫, 진인진, 2021.

Ⅳ. 사회·문화적 배경

다뉴세문경의 전개에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진다. 그 배경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도 연계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 한국식 청동기의 본격적인 출현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 사례로 선주민인 지석묘(석기) 집단에 이주민인 목관묘(청동기) 집단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며, 이와 더불어 철기, 또는 금·은·칠기를 소유한 집단의 유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들 자료는 재지집단과 상호관계에 일정기간 병행되는 양상이 관찰되어 각각의 집단은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고(독립, 대립, 융합 등), 또한 이들은 구성원이 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8]. 하지만 이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선주민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환경과 사회를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배타적인 분위기를 탈피하려 노력하였을 것인데, 그 과정에 물품의 보유(또는 전달, 증여) 및 결혼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 속에 다뉴세문경의 생성과 소멸은 철기의 유입(이주민 집단, 물질문화)에 전환기적 양상이 파악된다. 먼저 다뉴세문경의 생성은 중국의 철기가 한국에 들어와 청동기의 변화 및 자체 발전이 병행되기 시작한다. 이 철기의 유입은 다양한 고고자료로 확인되는데, 그중 주조제의 철겸과 철부가 대표적이다. 그 사례는 완주 갈동 2·3·6호묘[39]와 최근 조사된 익산 마동 5·10호묘[40] 등이며, 이들 자료는

38) 허준양, 〈한반도 남부지역 후기 청동기문화의 융합과 의의〉, ≪考古學으로 본 古朝鮮≫, 第4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韓國考古學會, 2017; 허준양,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변혁, 그 위기와 대응〉, ≪위기와 대응: 고고자료의 해석≫, 제64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 한국고고학회, 2021.

39) 湖南文化財硏究院, ≪完州 葛洞遺蹟≫, 2005.

중국 전국시대의 燕國(하북성 연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41]. 이 철기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를 모방하거나 자체 생산, 또는 청동기 제작에 철기 기술을 이입하여 변형 생산을 도모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42]. 즉 청동기를 소유한 집단에 新제품이 들어와 재지집단은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다뉴조문경은 다뉴세문경으로 변화되어 당시 급변하는 사회에 상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볼 때, 기술의 발전은 철기의 유입에 필수적이면서 독자적인 변화를 꿰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집단의 영향력 및 응집력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주 일대의 목관묘에서 다수의 다뉴세문경이 부장되어 소유자 또는 집단의 상호 관계가 주지되는데, 이점은 권위를 넘어 구성 간의 상호 관계를 동경이라는 매개체로 연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완주 일대의 청동기와 철기를 소유한 인물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집단을 이어주는 흥미로운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변화는 다뉴세문경의 생성과 발전으로 집단 구성원과 사회체제 구축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당시의 배경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

40)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익산 마동유적≫, 2022.

41) 白雲翔,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韓·中 鐵器資料集Ⅱ 하북성 출토 燕國 철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김상민,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 -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중심으로-〉, ≪고고학지≫19, 2013; 이동관, 〈韓半島南部 鐵器文化의 波動 -初期鐵器·原三國期 鐵器의 系譜와 劃期-〉, ≪고고학지≫23, 2017.

42) 허준양, 〈강진 현산리 목관묘 출토 청동기의 이해〉, ≪강진 현산리 유적≫, 2023.

〈그림 9〉 한국 출토 주조철겸과 주조철부 (필자 촬영·편집)

다음으로 다뉴세문경의 소멸은 일본과 한국의 변화하는 양상으로 살펴진다. 일본 출토 다뉴세문경은 다종·다양한 한국식 청동기가 목관묘에 부장되어 단순히 물질자료의 전파가 아닌 지역 내 군집을 형성한 집단 사회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점은 이후 출토된 자료지만 고인골에서 그 관련성을 짚어 볼 수 있다. 鳥取縣 青谷上寺地 유적의 100개체 고인골 중에서 31인은 도래계로 판명된 바 있다[43]. 이 자료는 대륙계 야요이인(渡來系 彌生人)[44]으로 구분되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집단으로 해석된다[45]. 또한 이들은 규슈지역에서 산인지역(시마네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점은 인간의 이동과 문

43) 篠田 謙一, 〈DNAからみた青谷上寺地遺蹟の彌生人〉, ≪特輯 倭人の眞實≫, 鳥取縣埋葬文化財センター, 2019.

44) 대륙계 야요이인은 고신장·고안형(高身長·高顔型)으로 분류된다. 片岡宏二,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1999.

45) 金関丈夫, 〈彌生時代人〉, ≪日本の考古學≫Ⅲ, 河出書房新社, 1966.

화 변동에 호의적이거나[46], 배타적인 분화로 해석되기도 한다[47]. 따라서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을 보유한 집단은 이상의 사회 속에 그 전통을 유지하고, 또한 정주와 이동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 한국의 '物·人·技術'이 전래된 것과 더불어 조족문(표식, 상징)이 관찰되는 한국식동검, 구분마연 기법의 존재 등은 한·일 관계의 연계되는 직·간접적인 요소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사례 검토가 요구된다[48].

한국의 다뉴세문경 소멸은 영남지역 유문동과의 출현과 맞물린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의 채용(문양 시문)과 관련되고, 복합거치문과 우상문으로 귀결되어 그 상징성이 유존한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변모는 급변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따른 것인데, 영남지역에 본격적인 철기의 유입 이전에 이들이 성립된 모습이다. 즉 영남지역의 초기 청동기는 철기가 공반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 출토되는 양상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청동기만 부장된 대구 신천동[49]과 경주 입실리[50] 유적과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부장된 경주 구정동[51]과 대구 팔달동 45호묘[52]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한반도 서남부지역,

---

46) 森 貞次郎, 〈靑銅器の渡來 銅鏡, 細形の銅劍, 銅矛, 銅戈〉, ≪世界考古學大系 2 日本Ⅱ 彌生時代≫, 平凡社, 1960; 後藤 直, 〈韓半島の靑銅器副葬墓 -銅劍とその社會-〉,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1984.

47) 田中良之, 〈いわゆる渡來說の再檢討〉, ≪日本にける初期彌生文化の成立≫, 橫山浩 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Ⅱ, 橫山浩一退官記念事業會, 1991; 田中良之, 〈いわゆる渡來說の成立過程と渡來の實像〉, ≪列島初期稻作の担い手は誰か≫, 公益財團法人古代學協會,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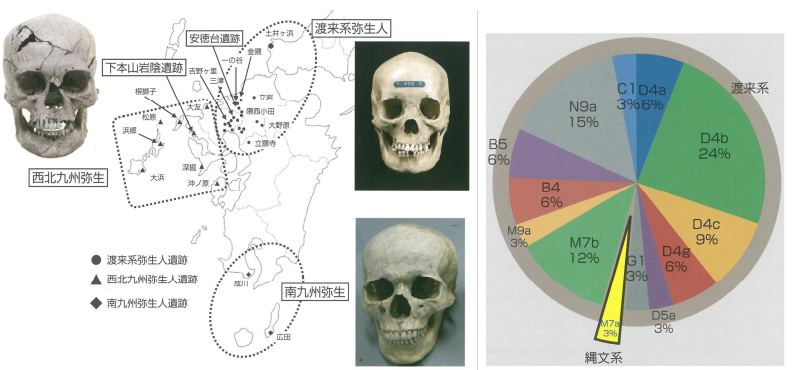
48) 허준양, 〈區分磨硏 技術의 出現과 展開 -韓·日 出土 武器形靑銅器를 中心으로-〉, ≪영남고고학≫77, 2017.

49) 尹容鎭 外, ≪大邱의 文化遺蹟 -先史, 古代≫,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50) 朝鮮總督府,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2, 1922; 梅原末治·藤田亮第, ≪朝鮮古文化鏡鑑(第一卷)≫, 養德社, 1947; 樋本杜人, ≪朝鮮の考古學≫, 同朋舍, 1980.

51) 金元龍,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1952.

후자는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다뉴세문경 소멸은 전자와 관련되고, 이후 후자와 병행해서 유문동과가 자체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적으로 후자에 출토되는 철기는 전자의 철기와 다른 모습이어서[53], 영남지역의 다채로운 변화상이 한반도의 정세와 맥을 같이하는 정황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림 10〉 일본 彌生人과 鳥取縣 渡來系 彌生人의 DNA그룹 (篠田 謙一 2019)

이상의 한반도 내 사회·문화적 배경은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연(燕), 왜(倭) 등 역사적 사실과도 연결된다. 이 모습은 당시 사회·문화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고고자료와 문헌자료의 병행 검토로 직·간접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52) 嶺南文化財硏究院, ≪大邱 八達洞 遺蹟 Ⅰ≫, 2000.

53) 후자는 영남지역의 초기 철기류로 검토되는 대구 월성동 777-2번지 Ⅰ-6호묘 출토품 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Ⅱ) -靑銅器~近代-≫, 2008.

① 朝鮮候 準이 참람되게 王이라 일컫다가 燕나라에서 망명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準王은 近臣과 宮人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韓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漢王이라 칭하였다. (『三國志』 卷30, 東夷傳 韓)

② 과거에 朝鮮王 準이 衛滿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馬韓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스스로 漢王이 되었다.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

③ 일찍이 右渠가 격파되기 전에, 朝鮮相 歷谿卿이 우거에게 諫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으로 辰國에 갔다. 그 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천여 戶였는데, 그들도 역시 조선·진번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三國志』 卷30, 東夷傳 韓 所引 魏略曰)

위의 문헌에 기록된 준왕, 위만, 역계경 등의 인명과 진국, 마한, 진번 등의 집단(정치체)은 당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동시에 이들이 소유한 청동기, 철기 등은 그들의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집단의 관계, 또는 물자의 이동과 관련되고, 또한 지역 거점을 통해 상호 교류된 당시의 사회 및 그 변모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일련의 기록에 대해 準王이 衛滿에게 쫓겨 韓地로 망명하여 韓王이라 칭하는 準王南來說[54]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견해[55], 또는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인식한 연구 등으로 살펴지기도 하였다[56]. 위와 함께 이양수는 영남지역에 출토되는 철기, 금·은기의 사례를 통해 위만조선 문화의 파급과 동시에 재지화된 당시의 단면으로 해석한 바 있는데[57], 燕의 멸망(기원전 222년), 秦의 통일(기원전 221년), 漢의 건국(기원전 202년), 위만조선의 성립과 준왕의 남하(기원전 194

54) 金貞培, 〈準王 및 辰國와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硏究≫13, 1976.
55)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35, 한국고대학회, 2011.
56) 全榮來, 〈馬韓時代의 考古學과 文獻史學〉, ≪馬韓·百濟文化≫12, 1990.
57) 이양수, 〈변진한 지역에 영향을 준 위만조선의 문화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한국학논총≫5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년) 등 주변국의 정세가 급변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주민의 남하로 토착 사회에 유입된 물품과 사람은 융화되고, 동시에 그 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명과 집단, 그리고 그 시점을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직접적인 연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검토 및 자료의 출토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집단 간 상호 관계에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지역 내 구축된 영역과 제품의 변화로 살펴진다. 그 과정에는 집단은 정체성과 연결해서 검토되고, 또한 新물질자료의 출현은 급변하는 당시 사회에 변동으로 이해된다. 특히 일련의 문화는 당시 이데올로기의 변혁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그 과정에 집단의 이주는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이해되어 배타적이면서도 호혜적인 상호 관계에 다양한 모습이 그려진 것이다. 이상의 전개와 배경으로 다뉴세문경은 생성-발전-소멸 과정에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 그 다채로운 변화상이 나타난 것이다.

Ⅴ. 맺음말 :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출토 다뉴세문경의 생성-발전-소멸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전개의 의미와 배경을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물의 전환 또는 발전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현상, 즉 新제품의 출현과 변천을 다뉴세문경에서 찾아내었다. 또한 다뉴세문경의 자체 발전과 그리고 최종적인 소멸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후자의 급작스런 사라짐을 주목하였다. 그 소멸은 2갈래의 전개로 파악되며 첫째 일본 다뉴세문경의 출현, 둘째 영남지역 유문동과의 제작이 그것이다. 이들 양상은 공인의 이주, 그리고 문양 채용(제품의 부재)과 관련되어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상의 과정에 다뉴세문경 출현의 중심지는 예

산-부여 일대, 제작(생산), 또는 유통(분배) 중심지는 완주 일대로 파악된다. 또한 한반도 내 新물질자료의 출토로 다뉴세문경의 변화가 그려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철기의 유입이 주요하다. 물질자료의 유입은 문화의 전파와 연동되고, 그에 따른 집단 간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한국의 청동기는 불가피한 변모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에 다뉴세문경은 생성-발전-소멸이 진행된 것이다.

다뉴세문경의 생성과 소멸은 한국고고학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와도 같았다. 여기에서는 제품의 조합과 그 제작, 그리고 공인의 이주 및 기법의 부재 등으로 접근하여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외에 다양한 검토가 부족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어 추후에는 이상을 보완하는 실증적인 관찰과 현지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일의 공동 연구와 보존과학의 협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Ⅱ) -靑銅器~近代-≫, 2008.

김상민,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 -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중심으로-〉, ≪고고학지≫19, 2013.

金元龍,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1952.

金元龍, 〈十二台營子의 靑銅短劍墓 -韓國靑銅器文化의 起源問題-〉, ≪歷史學報≫16, 1961.

金貞培, 〈準王 및 辰國와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硏究≫13, 1976.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

련하여-〉, ≪선사와 고대≫35, 한국고대학회, 2011.
白雲翔,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韓·中 鐵器資料集Ⅱ 하북성 출토 燕國 철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거푸집鎔范과 청동기靑銅器≫, 2011.
안경숙, ≪多鈕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嶺南文化財硏究院, ≪大邱 八達洞 遺蹟 Ⅰ≫, 2000.
尹容鎭 外, ≪大邱의 文化遺蹟 -先史, 古代≫,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李健茂, 〈有文銅戈考〉, ≪震檀學報≫71·72, 1991.
李健茂, 〈韓國 靑銅儀器의 硏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28, 1992.
李健茂, ≪韓國式銅劍文化의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李健茂, 〈多鈕精文鏡에 대하여〉,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국보 제141호 '多鈕細文鏡'연구≫, 제5회 매산기념강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이동관, 〈韓半島南部 鐵器文化의 波動 -初期鐵器·原三國期 鐵器의 系譜와 劃期-〉, ≪고고학지≫23, 2017.
李陽洙, 〈多鈕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 ≪嶺南考古學≫35, 2004.
李陽洙,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10.
李陽洙, 〈다뉴뇌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고려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35, 2010.
李陽洙, 〈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 -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57, 2011.
이양수, 〈변진한 지역에 영향을 준 위만조선의 문화 -기원전 194년부

터 기원전 108년까지-〉, ≪한국학논총≫5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李在賢,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016.
李淸圭, 〈東北亞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40, 1999.
林炳泰, 〈靈岩出土 靑銅器鎔范에 대하여〉,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記念論叢Ⅰ -考古學篇-≫, 一志社, 198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完州德洞遺蹟≫, 2012.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익산 마동유적≫, 2022.
全榮來, 〈韓國靑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 -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 ≪全北遺蹟調査報告≫7, 全州市立博物館·韓國文化財保護協會全北支部, 1977.
全榮來, 〈馬韓時代의 考古學과 文獻史學〉, ≪馬韓·百濟文化≫12, 1990.
趙鎭先, 〈多鈕粗文鏡의 型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62, 2008.
중앙문화재연구원, ≪청주 오송유적≫, 2018.
韓修英,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硏究≫,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허준양, 〈嶺南地域 靑銅武器의 祭器化에 대하여〉, ≪영남지역 무기와 무구≫, 제1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2010.
허준양, 〈區分磨硏 技術의 出現과 展開 -韓·日 出土 武器形靑銅器를 中心으로-〉, ≪영남고고학≫77, 2017.
허준양, 〈한반도 남부지역 후기 청동기문화의 융합과 의의〉, ≪考古學으로 본 古朝鮮≫, 第4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韓國考古學會, 2017.
허준양,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변혁, 그 위기와 대응〉, ≪위기와

대응: 고고자료의 해석≫, 제64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 한국고고학회, 2021.
허준양, ≪한국식 청동무기의 동북아지역 전개≫, 진인진, 2021.
허준양, 〈다뉴세문경의 모티프와 사용〉, ≪청주 오송 출토 다뉴세문경 조사 연구 한반도의 청동기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古鏡Ⅱ≫,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나라현립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2022.
허준양, 〈강진 현산리 목관묘 출토 청동기의 이해〉, ≪강진 현산리 유적≫, 2023.
湖南文化財研究院, ≪完州 葛洞遺蹟≫, 2005.
湖南文化財研究院, ≪完州 新豊遺蹟Ⅰ -가지구-≫, 2014.
後藤 直, 〈日韓 청동기문화의 비교〉, ≪한일 농경·청동기문화의 비교연구≫, 제8회 고고학 연구 공개강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唐洪源, 〈吉林東遼公路沿線文物調査簡報〉, ≪博物館研究≫1, 吉林省博物館, 1992.
滿承志, 〈通化縣小都嶺出土大批石范〉, ≪博物館研究≫3, 吉林博物館學會, 1987.
張英, ≪吉林出土銅鏡≫, 文物出版社, 1990.

甲元眞之,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論叢≫22, 九州古文化研究會, 1990.
高橋敏, 〈破鏡と四方転びの箱〉, ≪研究紀要≫7, 公益財團法人山形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5.
宮里 修, 〈粗文鏡について〉, ≪史觀≫144, 早稻田大學史學會, 2001.
宮里 修, 〈多鈕細文鏡の型式分類と編年〉, ≪考古學雜誌≫92-1, 日本考古學會, 2008.
近藤喬一, 〈武器から祭器へ〉, ≪古代史發掘≫5, 1974.

金関丈夫,〈彌生時代人〉,≪日本の考古學≫Ⅲ, 河出書房新社, 1966.
金元龍, 〈韓國江原道襄陽郡出土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 ≪史林≫50-2, 史學研究會, 1967.
大林太良,≪葬制の起源≫, 角川書店, 1977.
藤丸詔八郎,〈破鏡の出現に關する一考察〉, ≪古文化論叢≫30(上), 九州古文化研究會, 1993.
梅原末治,〈多鈕細文鏡の再考察〉,≪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文集≫, 大阪屋號書店, 1934.
梅原末治·藤田亮第, ≪朝鮮古文化鏡鑑(第一卷)≫, 養德社, 1947.
樋本杜人, ≪朝鮮の考古學≫, 同朋舍, 1980.
常松幹雄, ≪最古の王墓 吉武高木遺蹟≫, 2006.
森 貞次郎,〈青銅器の渡來 銅鏡, 細形の銅劍, 銅矛, 銅戈〉, ≪世界考古學大系 2 日本Ⅱ 彌生時代≫, 平凡社, 1960.
石神 恰,〈弥生ことはじめ事情〉,≪弥生創世記≫,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2003.
篠田 謙一, 〈DNAからみた青谷上寺地遺蹟の彌生人〉, ≪特輯 倭人の眞實≫, 鳥取縣埋葬文化財センター, 2019.
辻田淳一郎,〈破鏡の傳世と副葬-穿孔事例の觀察から-〉, ≪史淵≫142,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2005.
岩永省三,〈多鈕細文鏡再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九州古文化研究會, 1983.
宇野陵未,〈多鈕鏡の研究〉, ≪史林≫60-1, 史學研究會, 1977.
田中稿二,〈多紐細文鏡と渡來集團〉, ≪季刊考古學≫43, 1993.
田中良之,〈いわゆる渡來說の再檢討〉, ≪日本にける初期彌生文化の成立≫, 横山浩 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Ⅱ, 横山浩一退官記念事業會, 1991.
田中良之, 〈いわゆる渡來說の成立過程と渡來の實像〉, ≪列島初期稻作の担い手は誰か≫, 公益財團法人古代學協會, 2014.
朝鮮總督府,〈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

2, 1922.
佐久考古學會, 〈特集 社宮司·多鈕鏡の再檢討〉, ≪佐久考古通信≫108, 2011.
千葉基次, 〈多鈕鏡についての再檢討〉, ≪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春日市敎育委員會, ≪須玖タカウタ遺蹟3 -5次調査-≫, 2017.
片岡宏二,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 1999.
平吹豊, 〈多鈕細文鏡の硏究〉,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紀要≫15, 1999.
後藤 直, 〈韓半島の靑銅器副葬墓-銅劍とその社會-〉,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1984.

※ 이 論文은 2023年 8月 15日 投稿 完了되어 2023年 9月 18日까지 審査委員들이 審査하고, 2023年 9月 23日까지 審査委員 및 編輯委員會議에서 揭載로 判定되었습니다.

Development of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in Northeast Asia : Creation and Extinction

HEO, JUN YANG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searche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reation-development-disappearance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多鈕細文鏡) excavated in Northeast Asia, and through this, examines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its development. In this article, we did not just focus on the conversion or development of objects, but also found the phenomenon of grafting the best technology at the time, that is, the appearance of a complex product in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The creation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was made by adopting the knob and patterns of the patterned bronze(有文青銅器) in the original form of the the bronze mirror with coarse linear designs (多鈕粗文鏡). At the same tim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means the emergence of a finished product that embodies the symbolism of a ‘mirror’ by enabling the insertion of patterns in the center and partitioning of the inner, middle and outer quarters. The development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has been developed through diversification of patterns, materialization of use, and standardization of breakage. In particular, the changes seem to be concentrated around the Wanju(完州) area, so Wanju can be considered as the center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The disappearance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is confirmed by the production of patterned bronze halberd following the appearance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in Japan and the spread of technology in the Yeongnam region. Their aspects make it possible to look at the changes in the socie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Islands at the time due to the migration of public figures (things, people, skills) and the absence of production methods (adopting patterns).

The development of the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above can be grasped by the excavation of new material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transitional aspect of the inflow of ironware from China is examined. Material data is understood as the spread of culture, and it seems that the group of Bronze Age culture was inevitable to change in a series of processes a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groups was important. A series of developments are examined as a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are also connected to historical facts such as Gojoseon(古朝鮮), Wimanjoseon(衛滿朝鮮), and Yan(燕). However, as it has already been not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substitution of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data, this study is finished at the level of a brief review.

Key Words :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creation and extinction, patterned bronze halberd, bronze mirror with fine linear designs in Japan, ironware in china